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97>

JCCT 2024-5-46

교수자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 관계에서의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 성인대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 Communication and Reselection of the same Instructor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

우정미*, 김진숙**

Woo Jung Mi*, Kim Jin Sook**

요약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2~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498부의 설문지를 SPSS 22.0과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성인대학생이 교수자 재선택의 경로에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학습몰입의 매개로 성인대학생이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수자가 성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면 성인대학생의 수업만족도와 함께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대학생, 교수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 재선택, 학습몰입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to lear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or communication and reselection of the same instructor among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urvey with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attending a two or three year college or a university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 Province and analyzed a final total of 498 questionnaires with the SPSS 22.0 and AMOS 22.0 statistical program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instructors'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had total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th of reselection of the same instructor by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but it had no direct significant effects on reselection of the same instructor. Instructors'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had indirect effects on reselection of the same instructor by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via commitment to learning. These findings imply that if instructors make use of their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lessons for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i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ir commitment to learning as well as satisfaction with lessons.

Key words :college students in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 verbal communication, instructor nonverbal communication, reselection of the same instructor, commitment to learning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 박사 우정미
(아우르다교육원 부원장)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부 교수 김진숙
접수일: 2024년 3월 13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7일

Received: March 13, 2024 / Revised: April 2, 2024

Accepted: April 27, 2024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any
Univ, Korea

1. 서론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기존의 산업 경제 관련 직업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하이테크 기반의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등장함에 따라 평생에 걸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정원의 미충원 사태가 나타난 한편,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들의 재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에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대학, 특히 지역대학은 학문 탐구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역할에서 나아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확보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이 학령기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면, 이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등 성인대학생 중심의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성인대학생의 학문적 동기인 학위 취득과 재취업, 직업전환, 학업 수행에 대한 만족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성인대학생이 주된 교육 대상인 대학들은 이 새로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학습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재등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성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이들의 학업성취도, 학습전이, 학습지속의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따라서 성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수내용과 전달 방식을 고려한다면, 학습만족도의 향상은 교수자에 대한 재선택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수와 학습자 간의 소통은 상호 간의 신뢰 및 수용, 라포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수업의 목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3]. 특히, 교수자의 신뢰형과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은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학습몰입과 대학생활 만족도 증가로 나타난다[4]. 즉, 교수자가 성인대학생에게 재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활용하여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과의 라포 형성을 바탕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감과 학습지속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5].

교육현장에서 학습몰입의 개념은 학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도를 비롯해 즐거움과 재미, 개인 능력 향상과 만족을 포괄한다[6]. 학습몰입은 학습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몰입은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고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그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여 즐거움과 창조성을 경험하는 상태이다[7]. 성인대학생은 재취업 및 직업전환, 직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이나 배움 자체의 즐거움 등을 위해 다시 대학기관에 입학한 것이므로 학습몰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성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각자가 가진 고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무능력 향상, 직무관련 지식 습득 등 최상의 경험을 통해 개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8]. 성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학업 성취도와 재미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과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 본인에게 의미와 만족감을 선사한 교수자에 대한 재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대학생은 학령기 대학생보다 그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각 성인대학생의 연령대, 결혼 여부, 직업, 대학생활 이유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들이 인식하는 교수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 재선택, 학습몰입 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하위요인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의 배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각 특성에 적합한 강의 방식 및 과제의 난이도, 학습몰입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마련함으로써 성인대학생을 위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및 학습자의 교수자 재선택의 중요성과 함께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이 교수자 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성인대학생은 교수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즉, 라포 형성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에 대한 재미와 몰입도가 향상된다. 이는 곧 학습전이, 학습지속의향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학습자는 본인에게 의미 있는 교수자를 재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자 커뮤니케이션은 교수자 재선택과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 커뮤니케이션과 성인대학생의 교수자 재선택에 대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자의 상호작용 역량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4년제 2개 대학과 2~3년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376명으로 전체의 75.5%를, 남성은 122명으로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은 4년제 대학교가 287명으로 57.6%를 차지하였으며, 2~3년제 대학교가 211명으로 42.4%였다. 학년은 1학년이 266명(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125명(25.1%), 3학년 71명(14.3%), 4학년 36명(7.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5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 이상이 128명(25.7%)이었다. 20대는 12명(2.4%)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자 403명으로 전체의 80.9%였으며, 기타(사별, 이혼, 별거 등)는 49명(9.9%), 미혼은 46명(9.2%)이었다. 종교는 불교 175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무교는 160명(32.1%)으로 불교보다 적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이 119명(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주부 114명(22.9%), 서비스-판매직 72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전체 중 35.9%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인 21.7%로 두 번째였다. 이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순

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배움 자체가 162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학위 취득 112명(22.5%)이었으며 그 밖에 재취업 및 직업전환,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추출모형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의 경우 직각회전 방식인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KMO의 경우 0.6 이상, 공통성의 경우 0.4 이상, 요인적재량의 경우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한다. 척도의 타당성과 더불어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추정결과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즉,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SEM)의 모델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타당성이 있음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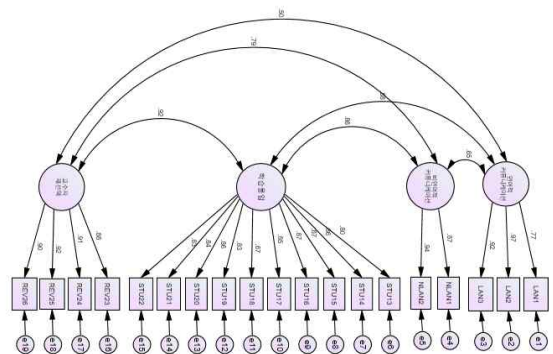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Figure 1. Measurement Model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09일까지 총 29일 동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4년제 2개 대학과 2~3년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교수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작성요령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후 비밀보장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비대면의 방식은 구글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498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변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성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수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 재선택, 학습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교수자 커뮤니케이션과 성인대학생의 교수자 재선택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 재선택, 학습몰입의 수준

본 연구의 교수자 커뮤니케이션, 학습몰입, 교수자 재선택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M=4.39)이 가장 높았고, 학습몰입(M=4.34), 교수자 재선택(M=4.33), 언어적 커뮤니케이션(M=4.29)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소에 대한 인식은 신뢰성(M=4.30)이 가장 높았고, 공감 및 친

근감(M=4.30), 전문성 및 전달성(M=4.23) 순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소에 대한 인식은 표현성(M=4.44), 외모 및 주변 환경(M=4.37) 순으로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구분		N	M	SD	최소값	최대값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및 전달성	498	4.23	.74	1.00	5.00
	신뢰성	498	4.32	.66	1.00	5.00
	공감 및 친근감	498	4.30	.69	1.00	5.00
	소계	498	4.29	.65	1.00	5.00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표현성	498	4.44	.62	1.00	5.00
	외모 및 주변 환경	498	4.37	.59	1.00	5.00
	소계	498	4.39	.58	1.00	5.00
학습몰입		498	4.34	.64	1.00	5.00
교수자 재선택		498	4.33	.71	1.00	5.00

2.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모형

<그림 2>와 같이 구조모형은 측정도구의 구성에 따라 통합 모형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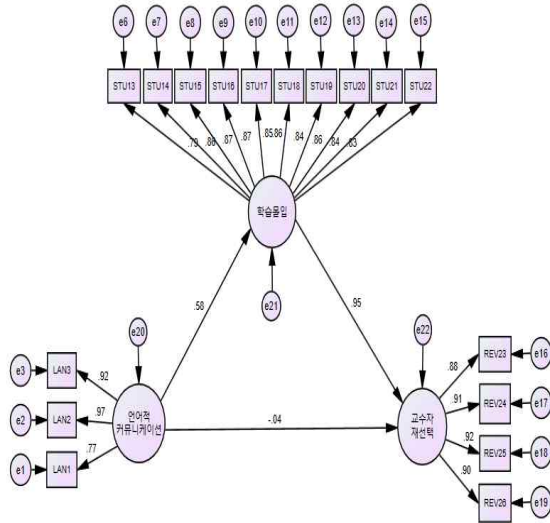


그림 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Figure 2. 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적합도 지수는 $\chi^2=619.48$ 1($p<.001$), GFI=.862, TLI=.936, CFI=.946, RMSEA=.093으로, 적합도 지수가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표 2>와 같이 분석되었다.

표 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Table 2. Fitness Index of 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NP AR	D F	CM IN	p	G F I	T L I	C F I	RMSEA (.093)	
								LO 90	HI 90
측정 모델	37	116	619.481	.000	.862	.936	.946	.086	.10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매개변수인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576$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종속변수인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3$ $p=.126$). 매개변수인 학습몰입이 종속변수인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beta=.946$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 간 미치는 영

향력이 가장 큰 경로는 학습몰입이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경로로 확인되었다.

<표 3>과 같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학습몰입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경로계수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경로	B	β	S. E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학습몰입	.612***	.576	.05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교수자 재선택	-.051	-.043	.034
학습몰입 → 교수자 재선택	1.059***	.946	.053

* $p<.05$, ** $p<.01$, *** $p<.00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 경로계수를 통해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로 간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도출하였다.

표 4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효과분해
 Table 4. 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Effect Decomposition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신뢰 구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교수자 재선택	.502**	-.043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학습몰입 → 교수자 재선택			.545***	.435-.633

* $p<.05$, ** $p<.01$, *** $p<.001$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경로에서 총 효과는 $\beta=.502$ ($p<.01$)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043$ ($p>.1$)로 나타났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몰입을 거쳐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beta=.545$ ($p<.001$)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

의 유의성은 편차 교정(bias corrected: BC)의 신뢰구간에서 하한 .435과 .633의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p < .001$)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효과분해를 통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학습몰입,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경로에서 학습몰입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표 4>에서 확인하였다.

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모형

<그림 3>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모형은 측정도구의 구성에 따라 통합모형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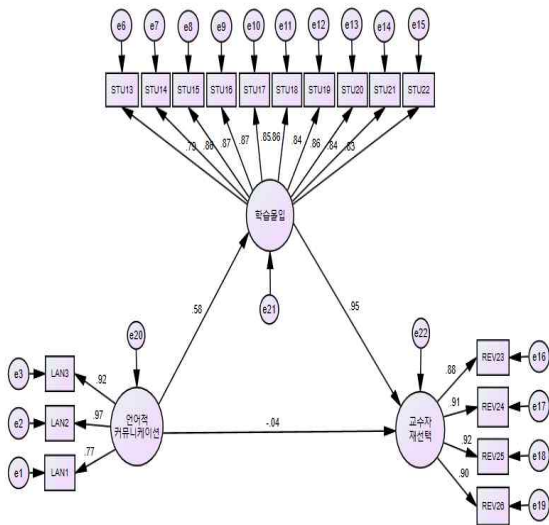


그림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Figure 3. Non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적합도 지수는 $\chi^2=628.395(p < .001)$, $GFI=.835$, $TLI=.930$, $CFI=.941$, $RMSEA=.103$ 으로, 적합도 지수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모형의 적합성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표 5>에서 분석되었다.

표 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Table 5. Fitness Index of Non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NP AR	D F	CMI N	p	G F I	T L I	C F I	RMSEA (.103)	
								LO 90	HI 90
측정모형	35	101	628.395	.000	.835	.930	.941	.095	.110

<표 6>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경로계수에서 독립변수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매개변수인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860(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종속변수인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27$ $p=.604$). 매개변수인 학습몰입이 종속변수인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beta=.944(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 간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경로는 학습몰입이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경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경로계수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Non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경로	B	β	S. E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학습몰입	.937***	.860	.046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교수자 재선택	-.032	-.027	.062
학습몰입 → 교수자 재선택	1.048***	.944	.070

* $p < .05$, ** $p < .01$, *** $p < .00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계수를 통해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로 간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구분하였다.

표 7.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모형 효과분해
 Table 7. Nonverbal Communication Structural Model Effect Decomposition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신뢰 구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수자 재선택	.785**	-.027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학습몰입→ 교수자 재선택			.812***	.727-.930

* $p < .05$, ** $p < .01$, *** $p < .001$

매개효과의 검증은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경로에서 총 효과 = .785($p < .01$)로 나타났으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027$ ($p > 0.1$)로 나타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몰입을 거쳐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beta = .812$ ($p < .001$)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편차 교정(bias corrected: BC)의 신뢰구간에서 하한 .727과 .930의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p < .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7>에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조모형의 효과분해를 통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학습몰입,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경로에서 학습몰입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성인대학생의 교수자 재선택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경로에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몰입을 거쳐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구조모형의 효과분해를 바탕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학습몰입,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경로에서 학습몰입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이 교수자 재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수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학습몰입이 교수자 재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결국 성인대학생의 교수자 재선택에서 학습몰입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자 재선택의 경로에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몰입을 거쳐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의 효과분해를 바탕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학습몰입, 교수자 재선택에 이르는 경로에서 학습몰입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이 교수자 재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학습몰입이 성인대학생의 교수자 재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성인대학생의 교수자 재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은 학습몰입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미용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재수강의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몰입도(과제몰입, 감성몰입, 인지적몰입)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별 신체언어, 신체외형언어, 공간언어와 재수강의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이러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환경과 학습효과, 그리고 학습동기와 학습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9]. 본 연구 또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자의 교수자 재선택에서 학습몰입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교수자 재선택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대학생은 학령기 대학생과는 달리 재취업 및 직업전환,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따라서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노력 이전에, 학습자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및 하이터치 강화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태도적인 상호작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와의 관계는 성인대학생의 학습몰입 및 학습성취도와 학습지속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가 교수자를 재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적용하고, 사례중심 및 토론식 수업 등을 통해 학습몰입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References

- [1] Beebe, S. A., & Mottet, T. P.(2006). Foundations of instructional communication. In T. P. Mottet, V. P. Richmond, & J. C. McCroskey (Eds.), Handbook of instructional communication: Rhetorical and relational perspectives 3-32. Boston: Allyn & Bacon.
- [2] Joo Young Ju and Kim So Na Kim and Park Su Yeong and Kim Eun Kyung(2009). Relationships among Learners'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Transfer in the Corporate Cyb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Studies, vol. 15, No. 1, pp. 23-43.
- [3] Goldstein, G. S., & Benassi, V. A.(1994). The relation between teacher self-disclosure and student classroom participation. Teaching of Psychology, 21, 212-216.
- [4] Park Sul Gee and Sim Sung Woo(2022). The effect of professors' communication styles and rapport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onlin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6, No. 11, pp. 141-156.
- [5] Lee Hee Seung(202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Building Rapport with Professors, Self-Efficacy, and Course Satisfaction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vol. 22, No. 2, pp. 99-120.
- [6] Wlodkowski, R. J.(2008).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3rd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7] Lee Hye Ran(2021). Effects of Beauty School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on Learners' Intent to Re-enroll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earning Commitment. Master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 [8] Park Ji Young(2018). Structural Relation Analysis of the Variables Affecting 'Work-first, Study-later' College Students' Learning Commitment. Ph. D.degree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Chong-Ang University.
- [9] Moon Young Ju(2021). Influence of E-Learning Learners' Learning Environment and Motivation on Their Learning Effec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Commitment.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1(13), 529-544.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